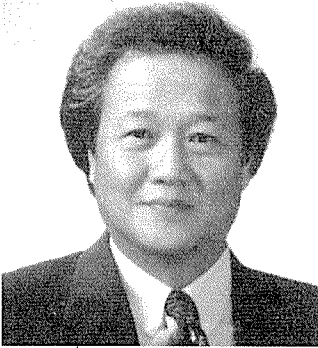


1999년도를 맞이하면서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 두 영

1998년은 파란만장의 해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민간위탁 문제, 대학도서관과 전산센터와의 명칭 및 기능의 통폐합, 각종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 축소, 도서관 예산 삭감, 사서직의 감원, 대학교의 학부제 도입 및 복수전공 허용 등 도서관 현장을 혼란시키고, 도서관 발전과 학문적 성장을 저해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밀어 닦았던 한 해였습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항의문이나 결의문을 써냈고, 언론에 호소했고, 관계 요로의 담당자와 책임자를 만나 설득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이기도 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만나주지 않으면 쳐 들어가기도 했고,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어내야만 했고,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대토론회도 열었고,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단결을 호소해야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 새해도 도서관계는 또 다시 작년과 같은 격동의 한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정부와 사회가 도서관 알기를 하찮은 무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란 미명하에 엉뚱한 발상이 나올 때마다 도서관이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서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과, 둘째로 도서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서관인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논리를 도서관과 같은 지식·문화기반시설에도 만병통치약처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최신정보자료의 입수가 대폭 중단되면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은 낙후될 것이며, 결국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계는 앞으로 닥칠 국가 정보력의 위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정부는 “지식기반 확충”과 “정보화”를 1999년의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편, 도서관은 공공을 위한 비영리기관이며 기업체는 최대의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목표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경쟁과 시장논리에 의한 동일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도서관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돈을 벌도록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정보서비스에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스스로는 21세기 지식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명감과 서비스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만이 모든 국민은 우리편이 되어 함께 싸워줄 것입니다. 과거처럼 도서관의 벽 뒤에서 묵묵히 일했던 사서의 모습에서 벗어나 행정에도 능통하고, 예산 따오기, 홍보와 경영마인드도 모두 갖춘 사서로 변화될 때 우리 주변의 모두가 우리를 전문적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문화예술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개발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의 전문도서관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점에서 인간의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문화 및 예술정보의 관리와 유통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일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가 내세운 올 한해의 각오와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